



9월 13일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 열두 살이 되었어요. 유월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유월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어! 예수가 보이지 않네?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어른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어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어른들은 모두 놀랐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가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네가
없어져서 무척 걱정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커가면서 더욱
지혜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아이

남우는 할머니가 사 주신 점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가와서 “남우야,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남우는 대충 대답하고, 다시 점토를 만지며 놀았어요. 엄마는 남우와 얘기하고 싶으셨지만, 남우는 점토를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남우야, 엄마 얘기 듣고 있니? 지금 남우의 행동을
보니까, 엄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구나.”
엄마는 서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얘기는 성경 말씀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게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즐거운 활동



교회학교 선생님이 쓰시는 것과 내가 쓰는 물건이 달라요.
내가 쓰는 물건은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쓰시는 물건은
초록색으로 줄을 그어 보세요.



나



선생님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다시 쓰기

선생님께

부모님께